

18개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65조원

지리산 5조 2,000억

국내 18개 국립공원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합친 경제적 가치가 6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방객 등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보호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가치는 58조원, 탐방객이 얻는 이용가치는 6조6천억원으로 보존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됐다.

공단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한번 이용하는데 1인당 1회 평균 1만797원을 지출할 수 있다', '환경보전에 1가구당 연간 세금 1만667원을 낼 수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근거로 보존 가치와 이용가치를 산출했다.

경제적 가치는 북한산이 6조1천억원으로 가장 높고 설악산(5조5천억), 지리산(5조2천억), 한려해상과 가야산(각 4조7천억), 태안해안(3조9천억), 내장산(3조8천억), 다도해(3조4천억), 계룡산(3조3천억), 변산반도(3조2천억) 등이다.

국립공원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는 연간 3조7000억원 규모로 국립공원 관리에 드는 연간 1천300억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24배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이 창출하는 생산·소득·부가가치·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5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설악산이 5천836억원으로 가장 높고 한려해상(2천348억), 지리산(1천680억), 오대산(1천324억), 변산반도(1천99억), 계룡산(961억) 순이다.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연간 지출하는 비용(교통·숙식·주차)은 총 7천799억원으로 설악산이 2천211억원(31%)으로 가장 많고 한려해상(914억), 지리산(655억), 오대산(518억), 변산반도(437억)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 한국 방문 관광객 615만명

2년연속 600만명 돌파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이 2년 연속 600만명 고지를 돌파했다.

24일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입국한 외래관광객은 지난 21일 600만명을 넘어서 연말까지 61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지난 2000년에 최초로 500만명을 넘어선 뒤 2004년 582만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602만명으로 사상 처음 600만명 고지를 넘었으며 올해에도 6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관광공사는 올해 65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해에 불거진 독도 및 교과서 문제로 인한 한일 양국간 경제색면이 연초까지 지속돼 일본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구나 원화 강세로 인한 한국관광상품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구매의욕 약화,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그리고 최근의 조류독감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600만명 달성만으로도 관광공사는 내심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관광공사는 올해 국내외 약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주력시장인 아시아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 드라마 페스티벌 등 관광비수기 외래관광객 유치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관광시장의 확대를 위해 '새마을운동'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韓電 전남본부 고객만족도 '으뜸'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전 전국 사업본부중 1위를 차지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항목은 요금, 업무, 품질, 직원 친절도 등 23개로 한전 전남본부는 100점 만점에 95점의 최고점을 받았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8개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해당 공기업 본사 및 전국 점포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결정하는 만큼 한전의 8년 연속 1등에 한전 전남본부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위 성적을 계기로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로도복권 (제212회)					팝콘복권 (제35회)				
당첨번호	2등번호	3등번호	4등번호	5등번호	등위	당첨금액	당첨번호	당첨금액	당첨번호
11 12 18 21 31 38	08				1	10억	7조	419604	
					2	5억	7조	419603	
					3	1천만	7조	419605	
					4	1백만	각조	06889	
					5	1만	각조	961	
					6	2천	각조	01	
					7	1천	각조	05	
							각조	6	
							각조	2	

‘분양가 상한제’ 도입 산너머 산

공급위축 막을 대책 있나

민간건설 의욕 꺾어 자칫 경기침체 우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가 내년중에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시범 실시하고 9월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공영개발 확대 등은 모두 민간 건설업체들의 영업 활동 의욕을 꺾는 제도이다.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민간 건설업체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

기는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일반아파트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급등한다면 환매조건부 아파트 입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당정협의의 후속절차로 정부가 실무적인 검토를 완벽하게 끝낸다고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도 겪어야 할 전망이다.

당정협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심지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탐탁치 않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비난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공급의 위축이 예상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년 아파트값 5% 오른다”

중개업소·네트즌 설문·공급량 감소에 상승 전망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네티즌들은 내년도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최근 중개업소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내년 아파트값이 5% 미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3%로 과반수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값이 5% 이상 상승할 것이라

는 응답도 22%에 달해 내년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내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하고, 대선을 앞두고 기대심리가 작용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5% 정도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은 9%,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4%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면 스피드뱅크가 최근 네티즌 4천8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집값 전망 설문에서도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고, 5% 미만의 완만한 상승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7.9%를 차지해 집값이 오른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5% 이상 하락한다'와 '5% 미만 하락한다'는 응답도 각각 29.3%와 6.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고객권 발행·리디노미네이션 동시에?

韓銀 “세계 10위 경제규모 반드시 필요”

고객권 발행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화폐제도개선의 마지막 남은 숙제인 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의 추진 여부가 새로운 관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권은 지금 당장 발행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2009년초에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은 2년여의 기간에 물가 변동과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고조될 경우 고객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은은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객권 발행이 일찌감치 이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 잔액은 6천742조원이다. 전체의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광의유동성 잔액은 10월말 현재 1천787조원이다. 이 정도는 약하다.

한은 금융망의 연간 결재액은 1998년 1경5천256조원으로 증가, 1

▲리디노미네이션=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 및 동전의 액면(額面)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컨대 1000원을 1환(가치)으로 바꾸는 식이다.

경(京)원대로 올라섰으며 2005년에는 3경원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 거래규모도 2경원대로 추산된다.

1경원을 장부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영(0)이 무려 16개나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통계단위의 대부분이 10억(billion) 단위로 해결되고 최대치라 하더라도 조(trillion) 단위에 그치는 점에 비해 볼 때 우리나라 통계단위의 인플레이션은 방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진영은 우선 물가양동 심리를 든다. 1천대 1로 화폐단위를 낮추면 소수점 이하의 우수리를 반올림하면서 생필품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알박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주택법 개정안 통과

건설교통부는 일명 ‘알박기’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으며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알박기를 어렵게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나 용역을 하면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우선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대한화재 ‘고객 만족경영’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대한화재(대표이사 이준호)가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산업자원부가 주관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화재 이창길이사(사진 왼쪽)가 지난 22일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산자부관계자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21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김두연 소장 ‘여성CEO를 위한 코칭스킬’

내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스코칭연구소장이 ‘여성 CEO를 위한 코칭스킬’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6일 오전 11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 21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두연 비즈니

- 일시 : 12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 여성 CEO를 위한 코칭스킬
- 강사 : 김두연 비즈니스코칭연구소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디자인 우수한 중기제품 전시하세요 한국무역협회는 디자인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무료로 전시 공간을 제공, 제품을 상설전시하고 판매와 수출상담까지 할 수 있는 ‘디자인 갤러리’를 21일 코엑스 1층에 개관했다. /연합뉴스

지준을 인상...은행권 금리 움직임은?

예금↓ 대출↑

수익성 약화 고객 전가 우려

한국은행의 원화와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이 인상됐으나 26일부터 지급준비율을 추가 적정해야 하는 은행들은 한달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준율 인상 외에도 내년 1·4분기보다 예고된 총액한도대출을 축소 등 당국의 시장 유동성 규제 조치가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오름세는 내년초에도 이어지고, 원화에 금 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엿보인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4.80%를 기록했다. 2003년 3월 25일 연 4.81% 이후 최고치다.

CD금리는 지난 10월 4.58에서 두달여만에 0.22% 급등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CD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이번주 7%대에 육박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5.38~6.58%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달여만에 금리가 0.53%나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주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5.80~6.90%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0.02%포인트 오른 5.5~6.8%가 적용되며 하나은행은 0.22%포인트 오른 6.0~6.7%가 적용된다.

LG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에 지급준비를 더 맡겨야 하고 낮은 금리로 빌리던 총액한도도 줄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 약화

분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